

우유팩 재활용 위한 다각적 사업 모색

친환경 제품의 재활용에 보람

윤 효 직 / 종이팩재활용협의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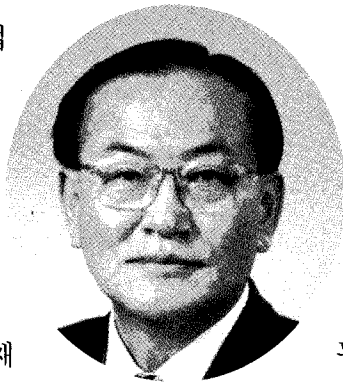
조이팩 제조업계 · 사용업계 · 재활용업계 및 관련 업계 등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폐우유팩을 비롯한 종이팩의 수집 및 재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환경보존과 자원재활용에 대한 업계 및 국민의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종이팩재활용협의회가 설립되었다.

환경문제가 강조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각종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 또한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재활용과 환경오염 문제이다.

이런 현실에서 환경관련 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데 무엇이 대단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종이팩재활용협의회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남다른 점이 있다.

종이팩재활용협의회 윤효직 회장은 건국유업 사장, 건국우유 대표이사, 한국유가공협회장, 종이팩재활용협의회장 직을 겸하며 열정적이고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학계에 몸담고 있었다는 윤 회장에게 회사경영과 각종 단체 일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물음에 경영도 학문의 연장이라며 말을 이어나갔다.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로겠지만 유가공업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료의 공급은 낙농업 종사자가 일정하지만 제품의 수요는 경기와 기후, 대체식품(과

일, 음료 등)에 의해 변동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합니다. 기존의 원료공급 낙농가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료를 100% 확보해야 하지만 수요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원유를 확보해서 우유소비량 만큼 소비시키고 나머지는 분유로 생산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라며 유가공업체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번에 종이팩재활용협의회를 새롭게 결성한 동기는 현재 우유팩이 환경오염물질로 규정되어 유가공협회 회원사를 비롯해 각종 팩을 사용하는 유가공업체들이 환경오염 분담금 조로 약 16억 가량을 예치하고 있는 데 이중 반환율이 약 8~9% 정도로 미미하다고 한다.

“우유팩 회수율을 높여 유가공업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최선의 선택”

이런 이유로 우유팩을 좀더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해 예치금의 반환율을 높여 유가공업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는 것이 환경 측면에서나 유가공업계의 측면에서도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의회를 결성했다고 동기를 피력했다.

현재 각종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가 우유 포장용기를 병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많은데 이는 유가공업계의 현 상태로는 고가의 시설비 소요가 발생해 자금불안이 우려되는 등 현실적인 주장이 아니라는 소신을 밝혔다.

물론 병우유가 20회까지 재사용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수율이 높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10회 정도 사용하면 위생관계에 있어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유팩의 회수율을 높여 휴지나 기타가공품으로의 생산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큰 방안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종이팩재활용협의회를 결성했고 앞으로도 다각도로 협의회 차원에서 우유팩을 재활용 할 방도를 찾아보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종이팩 및 우유팩을 이용해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접촉중이

라고 말했다. 현재 우유팩을 재활용해 만들수 있는 제품은 국내 기술로는 휴지에 한정되어 있다.

협의회 차원에서 외국의 재활용분야를 조사하는 한편 다방면으로 파악중이고, 국내 신기술 분야 실태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우유팩을 회수율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36%에 불과한 회수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아직 협의회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부족한 것이 많으며 앞으로 관련업체 및 재활용업체와 협력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유를 단체 급식하는 학교나 군부대, 병원에서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시간을 충북 음성에 있는 공장에서 보내고 서울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상경해서 유가공협회 업무와 종이팩재활용협의회 업무처리로 정신 없이 바쁘다는 윤효직 회장의 의욕에 찬 모습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박기진 기자